

타이어 안전사용 캠페인 7

출발전 타이어  
점검을 생활화  
합시다.

# 타이어의 안전 점검 사항

## 1 공기압은 잘 맞는지?

공기압 부족으로 사용하면 타이어에 열이 많이 발생하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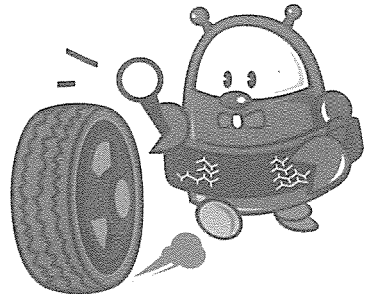
- 고무와 코드가 분리(세파레이션)되고
- 코드의 절단 및 타이어가 파열되며
- 타이어 가장자리가 빨리 닳아 수명이 짧아진다.

공기압 과다로 사용하면 타이어가 항상 긴장상태가 되어

- 외부 충격시 파열 및 절상되기 쉽고
-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지기 쉬우며
- 타이어 가운데 부분만 빨리 닳아 수명이 짧아진다.

※공기압은 자동차 제조사의 사용자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조건에 따라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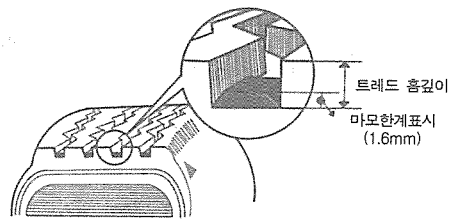
※고속도로 주행시 승용차용 타이어인 경우에는 공기압을 10% 더 넣어야 한다.



## 2 마모한계(남은 홈깊이 1.6mm) 이하인 타이어는 없는지?

마모한계 이하인 타이어를 사용하면

- 제동거리가 길어져 미끄러지기 쉽고
- 이물에 찢렸을 때 파열되기 쉬우며
- 수막현상(Hydroplaning)이 발생하여 브레이크 및 핸들조작이 어렵다.



●타이어 마모한계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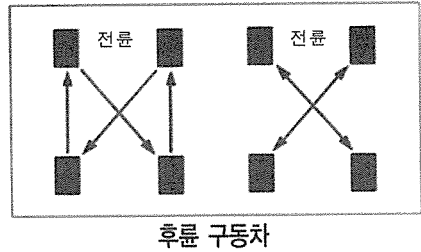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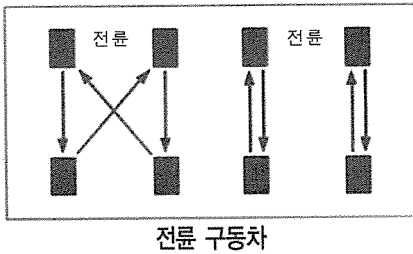
## 3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?

타이어에 못이나 트레드 홈 안에 돌 등의 이물이 박힌채로 운행하면 펑크가 나거나 파열될 수 있다.

손상된 타이어는 판매점에서 점검하여 카카스까지 도달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.

4 이상마모(편마모) 된 타이어는 없는지?

이상마모를 예방하려면 공기압 점검 및 차륜정렬을 해야 하며 균일한 마모를 위하여 8,000~10,000km 주행후 정기적인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해야한다.(마모상태에 따라 교환주기가 조정될 수 있다).



5 스페어 타이어는 이상이 없는지?

스페어 타이어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공기압, 손상유무, 마모상태 등을 필히 점검해야 하며 노후된 타이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.

6 휠의 손상은 없는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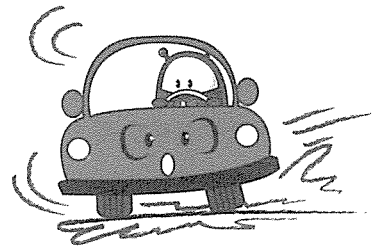
손상된 휠은 공기압이 빠져 사고의 원인이 되며 타이어 하중분포가 불균일하게 되어 파열되게 된다. 림과 타이어 비드부의 마찰로 많은 열이 발생하여 코드를 손상시킨다.

7 휠 밸런스는 잘 맞는지?

휠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면 핸들이 떨려 운전하기 어려우며 승차감이 나빠지거나 이상마모(편마모)가 발생되고 소음이 심해진다.

● 수막현상(하이드로플래이닝 : Hydroplaning)이란?

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가 노면에 닿아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위를 떠서 주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.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및 핸들조작이 어렵고 견인력이 없어진다.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모한계 이하는 타이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.



<대한타이어공업협회 기술부>